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

한국전기자동차협회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은 엔진용 부품, 차체용 부품 등 10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자동차 부품의 개수는 10년 전만 해도 1만-2만 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수가 3만 개를 넘어,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3만 5천 개까지 늘었다. 요즘에 한창 관심을 끌고 있는 전기 차의 경우에는 부품 수가 1만-1만 5천 개 정도이다(한국전기자동차협회, 2018년 7월 23일). 이처럼 내연 기관차든 전기 차든, 그것을 분해하면 엄청난 수의 부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동차 부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어떤 면에서 이 질문은 반지성적인 질문이다. 자동차에 있는 수많은 부품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다 가치가 있고 저마다의 특성과 목적이 있다. 어느 하나만 잘못되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품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사람의 몸은 어떨까?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 질문 역시 무의미하다. 몸의 모든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은 소중한 것이다.

사람의 다양성

이번에는 시선을 ‘다양한 사람’으로 옮겨보자. 거의 모든 사람은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가고, 또 잠을 자는 일과 같은 공통적인 일들을 하며 지낸다. 그런데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분명 사람은 모두 다르다! 나와 동일한 지문을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 어디 그뿐인가?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할까? 왜 사람에게에는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해진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만이 감당해야 할 기능, 특성, 자리 그리고 소명을 다르게 만드셨다. 다시 말해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반하여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며 행동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는 그 영향을 받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보다는, 모두가 동일한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왔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소중하고, 가치 있으며, 고유한 특성을 지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매우 낮설어한다.

우리 사회의 현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독특한 관점이 재단되어 획일화된 생각과 관점을 갖도록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모두를 ‘같은 형태’로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이런 교육에 노출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오늘날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다음세대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우리 사회는 ‘누가 더 높이가 올라가는가?’,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와 같은 질문에 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떠한가?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가?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내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허락해주세요!” 그렇지만 크리스천의 삶도 그다지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다음세대의 현실

우리의 다음세대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다음세대들 역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보고 배우며 자란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나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끌리고, 그것들을 얻으려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 더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탄식이 가득하다.

영적인 싸움

사탄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특성을 빼앗고, 재능이 발현될 기회를 빼앗고, 소명을 빼앗는 것이 사탄이 일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 전략은 상당 부분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더하시신 분

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더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빼기’가 아닌 ‘더하기’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기대하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그것이 나이든, 신앙생활의 연륜이든, 사회생활의 노련함이든—과 상관없이, 우리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에게 빼기가 아닌 더해주는 삶을 기대하신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더하며, 빛을 더하고 소망을 더하며, 격려를 더하고 축복을 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요담의 우화

사사기 9장에 요담의 비유가 나온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요담의 아버지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6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온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은 자신들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을 뿌리치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들로부터 얻은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삿 8:30). 그리고 세겜의 첩이 낳은 아들이 하나 더 있었고,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삿 8:31).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부인들이 낳

은 70명의 아들을 모두 한 바위에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다. 그가 바로 요담이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잔혹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삿 9:6). 아비멜렉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은 요담은 그리십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화를 통해 세겜 사람들의 행위를 꼬집었다(삿 9:7-15). 요담의 우화는 이렇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갔다.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하며 나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9절). 나무들은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도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11절).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13절).

요담의 우화는 아비멜렉의 악함과 세겜 사람들의 우매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우화 속에 나오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대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나무들은 자신들의 가치, 존재 이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우화 속의 나무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는 매력적인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이야기

지금 우리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모두가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의사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없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희망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화 속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

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왜 이 땅에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시선을 돌려보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들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약 1년이다. 그 기간의 역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전, 즉 본격적인 국가의 기능을 하기 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유년기 국가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가치, 의미, 목적 그리고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가지 선물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네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목적, 하나님 백성의 소명, 하나님 백성의 헌신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과 소명과 헌신을 말하지만, 동시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을 말한다.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그들의 가치이다. 그들의

가치는 주변국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둘째, 그들의 목적은 십계명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1-4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5-10계명을 통해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의 소명은 성막에서 드러난다.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인데, 성막 안에는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제사장들은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즉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은 성막 건축을 통해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예물은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뜻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라고 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목적을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각각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울여름, 우리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 소명 그리고 헌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